

## 치 사

여린 신록이 금정산을 초록으로  
물들이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력은 금정산의  
신록을 울창하고 올곧게 바꾸어  
나갈 공덕의 발로(發露)입니다.

마르지 않는 금빛 샘(金井)에 하늘의  
물고기(梵魚)가 살았다는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1400여년  
동안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늘의 물고기들이 가득한 빛나는 샘이었습니다.**

**특히 성월스님께서 ‘선찰대본산’이라 명명하신 이래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스님과 동산스님의 수행을 가풍으로 삼아 수행의 모범을 세워 왔습니다. 오늘날 제방의 수많은 범어 문도들은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면서 이와 같은 가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禪)불교의 대중화에 진력하고**

도심속에서 선(禪) 포교에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낸 수불스님이 범어사 주지로 취임하는 것은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시대의 요구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과 영남의 불교는 우리 불교계의 근간 역할을 맡아 왔기에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종교인들에게 부산불교는 ‘무너뜨려야 할 아성’ 이었고, 이 지역은 어느 곳보다 치열한 종교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수불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범어사는 부산 불교를 책임지는 곳으로 어느 본사보다 할 일이 많으니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부대중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산의 불자들은 부산을 불교의 수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부산 불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금정산의 신록과 함께 범어사의  
새로운 출발을 보면서 머지않아  
녹음으로 울창해질 범어사와 부산  
불교의 미래를 예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신록을 녹음으로 바꾸어 줄 신심과  
원력의 주인공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없고, 새벽부터 힘써 일하지 않으면 그 날은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수불스님이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를 부산불교와 교구에서도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 범어사가 명실공히 선찰 대본산이자 시대와 사회의 울창한 숲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수행자의 표상으로 정법포교와 교구안정에 큰 서원을 실천했던 정여스님의 법향 가득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선  
경험이 신임주지스님의 교구운영에  
많은 조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  
니다.**

**봄기운 가득한 양촌지절에 여기  
모이신 문도 여러분과 사부대중이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결  
하여 부산불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